

新興 - 1929. 07. 15.

「코-엔」哲學에 關한 斷片

-質에 對한 것과 立體的 見解-

金桂淑

1

코-엔 Hermann Cohen (1842-1918)은 新칸트 派의 一人이다. 그러면 新칸트派라는 것은 무엇이나. 칸트(1724-1804)는 自己 以前의 經驗的哲學과 懷疑的 哲學을 批判하여, 自己의 獨特한 哲學的 立場을 세웠다. 이것이 칸트의 批判哲學이다. 따라서 칸트는 十八世紀에 잇서서, 啓蒙哲學을 完成하여 知的 過程을 確立하는 同時에, 獨逸 理想主義 哲學의 關門을 開放하였다. 이 獨逸 理想主義는 피히테Fichte 셸링Schelling 슬라이엘마허Schleiermacher 等諸哲學者와 함께 헤-겔Hegel 에게까지 와서 그 絶頂에 達하였다. 이 哲學思想은 헤-겔을 一期로 하고, 其 後는 大略 二派로 分하게되니, 그것이 今日에 이르기까지 二大潮流인 唯心論과 唯物論이다. 이와 갓 치헤-겔 以後 二分한 後로 부터는, 여러 가지로 混沌된다 하여, 十九世紀의 中葉부터 칸트로 도라 가라“Zurueck zu Kant!”라고 絶叫하는 사람들이 잇스니, 그 重要的 者는 피쎄Kuno Fischer 쉐러-Zeller 리-브만Liebmann 랑게Lange 等이다. 이 사람들은 直接 칸트哲學을 屏開함으로써, 自己들의 哲學的任務라고 하기 爲문에 新칸트派라고 稱한다. 勿論 그 가운데는 直接 칸트를 祖述한 者도 잇고 批判한 者도 不少하다. 이와 갓치 十九世紀 中葉으로부터 勃興한 新칸트派는 獨逸 哲學界에는 勿論이오. 哲學界에 잇서서 揚揚한 氣勢를 가지고 잇는 唯心論者이다

더욱 今日에 잇서서는, 現象學이나, 歷史主義哲學 或은 精神科學的 哲學과 相對하여, 큰 關係를 가지고 잇다.

이러한 新칸트派는 現在에 와서 大概二分되어잇다. 그것은 말뭇派 Marburger Schule 와 西南學派 即 바-덴派 Badische Schule 라고 稱하는 것이다. 前者에는 코-엔 Cohen, 나톨푸 Natorp, 카씨-러- Cassirer, 할트만 Hartmann 等 이 잇고, 後者에는 빈델반드 Windelband, 릭커-트 Rickert,

코-엔 Cohn 等이 屬한다. 이와 갖치 二派로 分離하게되는 것은, 同一한 칸트의 學說을 論述하며 異開식킨다고 하여도, 各各 其 主張하는 方面이 相異하기 때문이다. 即 말뭉派는 論理的方面을 더 鼓吹하고, 西南學派는 價値論的方面을 만히 論破하기 때문이다. 故로 前者를 論理主義哲學이라고 하며, 後者를 價値論的批判哲學이라고도 稱한다.

이와 가튼 二大分 派中에서, 코-엔은 何者에 屬하느냐고 하면, 말뭉派 即 論理主義哲學에 屬하며, 이 말뭉派의 首領이라고 稱하는 哲學者이다. 即 코-엔은 新칸트派에서도 論理主義에 屬하기 때문에, 칸트哲學을 繼承함은 勿論이오, 論理的方面으로써 異開식킨 點에 잇서서, 獨特한 貢獻이 있다. 그러고 코-엔은 더욱 思索하는 方法에 이르러서는, 近代的方法 即 數學에 잇서서의 最初方法을 適用하였스며, 其 外에도 歷史的觀察이며, 全體的見解며, 動的立場이 輸入되어 잇슴을 洞察할수있다.

故로 다음에는 코-엔哲學 가운데서도, 이런 方面에 關한 것을 써 불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全혀 코-엔의 主著인 純粹認識의 論理學 Logik der reinen Erkenntnis 中에서만 論하기로 한다.

2

質에 對한 것과 立體的 見解에 對한 것을 論述하기 前에, 먼저 코-엔의 論理學 即 質과 立體的 見解가 包含되어잇는 論理學이 엇던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여야한다. 그 뿐만 아니라. 코-엔의 哲學을 알려고하면, 爲先 論理學을 알아야한다. 이 論理學 가운데 코-엔의 哲學的 思索方法과 其 基礎가 全部 包含되어 잇기 때문이다. 故로 順序로 먼저 코-엔의 論理學에 對하여 論述하려고한다. 即 코-엔의 論理學이란 무엇이나. 그런데, 以上에도말한 바와 가치, 코-엔은 新칸트派의 一人인만큼, 칸트哲學이엇던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은 略하고, 다만 코-엔의 論理學과 칸트의 哲學이 直關係되는 點만을, 여기서 考察하려고 한다.

우리가 언제던지, 認識論的 問題를 論議할 때에는, 恒常 認識의 對象 或은 客觀(客體) Gegenstand oder Objekt과 認識하는 主觀(主體) Subjekt 及其 兩者間의 關係가 問題되는 것이다. 그것이 認識論에 잇서서 本質的課題가 되고있다. 이와 가치 認識論에 잇서서, 恒常 問題될 뿐만 아니라, 本質的課題가 되는 認識의 客觀과 主觀 及 그 兩者間의 關係를, 칸트는 俗稱 第一 批判이라고 하는 純粹理性 批判 Kritik der reinen Vernunft에서 仔細하게, 더욱難解의 通稱이 잇슬만치 어렵게 論述하였다. 이 第一 批判은 先驗的 原理論과 先驗的 方法論으로 되었는데, 코-엔은 先驗的 原理論가운데서도, 先驗的 論理學 中에 잇는一部分, 即 範疇-純粹悟性概念-을 經驗에 適用하는데 關한

純粹悟性の原則에 특히 注意하였다. 그原則에는 一, 直觀의公理 二, 知覺의豫料 三, 經驗의類推 四, 經驗的 思惟一般의公準에 四種이 있다. 그런데 코-엔은 이 中에서, 第二의 原則 即 知覺의 豫料Anticipation der Wahrnehmung 에 關 思想을 高調하여, 論理學의 根本思想을 形成하였다. 知覺의 豫料의 原則이란것은 무엇이나, 即 모든現象에 잇서서, 感却의 對象이 되는 實在的物件에는 內包量 卽 度가 있다. In aller Erscheinungen hat das Reale, was ein Gegenstand der Emphndung est, intensive, d. I. einen Grad. 는 것이다. 換言하면, 現象을 認識함에 當하여, 感覺의 對象이 되는 實在的 物은 內包量-外延量의 反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코-엔은 칸트의 이 內包量의思想을 特別히 鼓吹하였다. 卽 코-엔은 內包量의 思想을 繼承하여, 自己의 論理學 全體에 對한 思索方法의 根本으로 하였으며, 이 方法으로 모든 것을 說明하였다. 이 內包量이란 것은, 外延量에 對하여 對稱되는 것인데, 一 外延量이 部分으로부터 出發하여, 全體를 說明함에 反하여, 內包量은 全體로 出發하여 部分에 이르는 思索方法이다. 이와 같은 全體的思索方法을 코-엔은 칸트哲學 中에서 攝取하였으며, 그것을 鼓吹하여 自身의 哲學全體에 對한 根本思想을 樹立하였다.

3

以上과 如한 思索方法으로 코-엔은 純粹認識의 論理學을 確立하였다. 코-엔은 吾人의 思惟는 存在의 思惟이며, 存在는 思惟의 存在라고하여, 칸트의 二元論的 哲學을 一元論으로 論破하였으며, 따라서 칸트의 先驗的 感性論은 先驗的 論理學에 이르러서, 비로소 完成할 筈아니라, 兩者는 內的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卽 코-엔은 思惟와 存在와의 同一性을 主張하였다. 故로 一元論的主張을 알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思惟와 存在와의 同一性에 對하여서, 或은 存在와 思惟와의 關係에 對하여서는, 別로 說明하려고 아니한다. 다만코-엔은 內包量的 思索 方法으로써 思惟와 存在의 同一性을, 그러나 思惟에서存在가 生産되지만, 存在에서 는思惟가 生産되지 못한다는것을 말하며, 따라서 思惟는 自身이, 그 根源으로부터 生産한다는 것이다. 故로 思惟는 根源의 思惟라고하며, 認識은 根源의 原理의 變化라고 함으로, 思惟는 或은 認識의 思惟라고도 하여, 코-엔 論理學에 잇서서는 根源과 認識과 思惟와 生産의 概念은 分離치 못할 것이다. 故로 以上에 前述한 바와 故치, 코-엔의 論理學은 純粹認識의 論理學, 或은 根源의 論理學이라고 稱하는것이다.

이와 故치 코-엔의 論理學은 根源의 論理學이라고 한 즉, 根源이란 무엇을 意味한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根源이란것은, 코-엔의 論理學에 잇서서는 思惟의 根源이며, 認識의 根源 卽 學的 認識의 根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웨그런나하면, 根源은 數學的 自然科學의 可能性을 必須的으로 豫想하며, 그 原理基礎를 意味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心理學的 意味를 構成하는 것이 아니고, 方法的, 促進的, 原理 Treibendes Prinzip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코-엔 哲學이, 얼마나 學的 可能性에 對하여, 따라서 具體的에 對한 것을 論說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코-엔 哲學에서는 根源과 具體的 妥當性 或은 具體的 普遍이 問題되는 것이지만 略한다.

以上과 如히 코-엔은 根源의 論理學을 主張하며, 思惟와 存在의 同一性을 問題삼았다. 따라서 根源은 思惟의 根源인 同時에, 그것은 生産하는 것이다. 그와 갖치 生産하는데 對하여 코-엔은 思惟法則으로 連續性을 論하였다. 即 코-엔 論理에 잇서서 最高의 法則이다. 이 連續性 Kontinuität 이란 思惟法則으로 因하여, 前述한 바와 갖치 一元論을 完成하며, 코-엔의 生産說을 意味 있게 하며, 따라서 根源과 生産의 關係를 完結하게 되는 것이다. 思惟와 存在의 同一性을 主張함도, 그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엔이 內包量을 完成할수잇으며, 칸트의 論理學에서 先驗的感性論이 先驗的論理學에 와서 完成한다고 하는 意味는, 全혀 이 思想에 基因하며, 그 基礎는 이 根本法則이 업고서는 不可能하다. 따라서 有名한 칸트의 코펠니쿠스 轉廻 Kopernikanische Wendung의 意味를 徹底하게 解說하였다고 볼 수 있다. 即 連續性이 잇슴으로 因하여, 根源에서의 生産이 數學的 自然科學에 이르기 까지, 따라서 存在에 對한 說明이 充分한 것이다. 우리가 認識問題에서 恒常 論議하는, 客觀과 主觀 或은 그 關係를 云謂하게되는 것도, 全혀 連續性을 그 法則으로 前提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엔의 內包量의 思索方法도 亦是 그러하며, 코-엔이 歷史的 觀察을 할뿐 아니라, 全體的 見解를 가지며 微積方의 方法을 取한 것도 이 法則과 相關되는 것이다.

以上과 如히 코-엔의 哲學은 全體性으로 出發하며, 그것을 連續성과 連絡 식킨 것을보면, 코-엔이 얼마나 近代的科學과 相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關係는 코-엔에 잇서서는, 꼭이나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近代的科學이라고 하여도 코-엔은, 數學方面과 相關한다. 코-엔이 連續性을 說明한다던지, 或은 生産 또는 內包量的 思索方法과 重要한 關係連絡을 가지고 잇는 것은 微積分的 見解다. 이 思索方法은 近代的 思索方法을 表現하고있다. 微分的 見解로만 滿足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 一層 나아가서 動的 過程으로 表現 하였기때문에, 全體的, 動的, 觀察을 볼수있다. 勿論 이와갓튼 觀察方法은 近代에만 잇는 것이 아니고, 古代에도 잇고 中世에도 잇섯지만 顯著하게 發輝되며, 意味를 表現한것은 近代 哲學思想, 或은 其他 科學에 잇서서의 일이다. 그것은 近代에 와서 自然科學과 相伴하여, 研究方法이 急進하게 發達하기 때

문시오, 最近에 잇서서는, 더욱 自然科學의 靜的考察外에 動的考察인 社會的科學이 發達함을 따라서 進歩한 것이다. 이와갓튼 思想이 近世에, 더욱 發達하였다는것은, 初期에 잇서서의 데칼트 Descartes 는 時間的存在를 高調하여, 모든 것을 純粹繼續으로써 說明하라고한 것을 보던지 或은 라이프닛츠 Leibniz 의 單子論과 豫定調和說을 보면 顯著하게 알 수 있다. 라이프닛츠는 單子論을 認定하고, 따라서 運動의 概念의 必要를 提唱한 것이 豫定調和說이다. 吾人은 여게서 全體的 思索方法의 如何와 運動의 概念과의 關係가 如何한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갓튼 觀察方法이 코-엔에 와서는 完全하게 明白하게 發顯되었었다. 코-엔의 連續性的 思惟法則과 微分的 見解에다가 過程的 見解를 加하여 說明한 微積分的 思索方法이 이것이다. 卽 코-엔은 連續성을 說明함에 잇서서 微分만을쓰지아니하고 微積分을 適用하였었다. 그러면 兩者의 差異와 關係가, 如何한가. 微分은 以上에서도 말한바 內包量의 思想을 數學에 應用한 것인데. 外延量을問題로 하는 積分과는 反對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x, y 에 對하여 dx, dy 가엇더한 것인가 하는 것을 問題로하는 것인데, 極小의 有限量이라고 하겠지만, 亦是 零은 아닌 것을 取扱하기 때문에 一定 有限數를 意味한다. 그러나 이와갓튼 微分에 코-엔은 滿足하지 아니하고, 一層 더 나아가서, 그 一定小數보담 더 極小한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過程으로 表現한, 相對的意味를가진것, 卽 微分 Differential 과는 相異한 微積分 Infinitesimal 의 概念을 輸入한것이 코-엔이다. 여기서 우리는 코-엔이 얼마나 近代的科學과關係가 잇는가를 推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갓튼 過程을 表示함에는, 相對的變化를하는 微分係數를 使用하였스며, 그러기 때문에 獨立 變數의 變化가 從屬變數의 變化로 化하여, 微積分의 根本的概念을 構成한다. 如斯한 從屬變數의 變化 卽 相對的 變化로 因하여, 極少數에 接近하려고 하는 것인데, 數學論에서이것을 極限法 Grenzmethode 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말하면, 微分 보담 더 進歩한 것이지만, 나틀프는 評하여 曰 코-엔은 이 方法을 適用하지 아니한것이 弱點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나틀프가 全然 코-엔을 非難排斥한 것이 아니고 補正한 것이다. 웨그런냐하면 코-엔은 微分을 쓰지 아니하고, 微積分의 概念으로 說明함을 보아도 明白하다. 그러기 때문에 코-엔의 境遇는 언제던지 微分보담 微積分인것을 알아야 한다. 田邊元氏의 數理哲學 研究에서 다만 微分으로만 取扱한 것은 遺憾이다.

이와갓튼 코-엔의 微積分的 見解에는, 必然的으로 連續성이 前提되어 잇스며, 그 外에 全體性이 包含된 것이 明白하다. 吾人은 過程을 問題하는 때에는, 더욱이 全體性이 問題되는 것이다. 故로 코-엔에 잇서서는, 더욱 數에서

는全體性 Allheit 이 問題된다. 故로全體性的 目的이 아니면, 無限小는 생각도 못되며, 全體性은 無限小의 獨特한 目的이오, 獨特한 事情이라고 코-엔도 말하였다. 卽 無限小가 問題되는것도全體性 때문인즉, 이것도 微積分의 思索方法이며, 內包量的 思索方法이다. 이와가튼 關係를 吾人은 以上에서 라 이브닛츠의 例로도 말하였지만, 뉴톤에서도 넉넉히 볼 수 있다. 뉴톤은 力學으로써 出發하여 流動 Fluxion과 流動體 Fluente의 關係를 論議하였스니, 그것도 全혀 運動의 概念이 輸入되어 잇슴을 表示하는 것이다. 卽 故로 코-엔도 連續性을 思惟法則으로 하고, 全體의 見地에서 生産說을 說明하였다. 卽 根源으로부터 學的 認識까지 生産된다. 이것이 根源은 具體的 普遍에 關聯하며, 對象을 說明하는 具體的 生産의 論理가 되는 까닭이다. 故로 無限의 次元에서 無限의 相聯에 依하여, 發展한다는것을 說明하는 動的一元論의 基因을 알 수잇스며, 卽 故로 코-엔 哲學에 잇서서의 存在的 要素 Faktum와 論理的 基礎定立 Begründung이 一元的으로 定立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故로 코-엔 哲學에서, 얼마나 思惟法則인 連續性과 全體性 及 運動의 概念이 相互關聯을 가진것을 알 것이다. 이것이 方法論에 잇서서 在來의 것과 相異하다는 것이다. 卽 在來의 一面的 觀察에 比하여, 코-엔은 動的立體的 觀察을 하였다는 것이, 吾人의 注意할 곳이다. 이런 것을 보면, 코-엔이 아모리 헤-겔의 發展的, 辨證法的, 方法을 排擊하였다고 하지만, 亦是 그 形式方法을 取하였스며, 存在와 非有와의 同一性 或은 그 關係를 보면 明白한 것이지만 仔細한것은 略한다.

4

코-엔은 以上과 如한 方法으로, 一元的 生産說을 說明하였다. 그것을 簡單하게 말하면, 生産 卽 所産 Erzeugung selbst ist Erzeugnis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가튼 生産할 수 잇는 것은, 全혀 思惟法則이며, 全體的이며, 微積分的 方法이 證明하는것이다. 그러면 엇더한 方式으로, 엇더한 形式으로 發展되는가 하는 것이 問題다. 卽 生産되는 過程의 發展形式 或은, 發展階段如何의 問題다.

코-엔에 잇서서는, 모든 것은 質에 依하여 生産되며 量도 質에서 生産된다. 換言하면, 根源이 質을 基礎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根源으로부터 量化하여 産出成立된다는 것이다. 이와가튼 모든 것을 質의 量化라고 하는 것은 코-엔 特有한 方法 卽 微積分的 思索 方法으로 나온 것이다. 그와 가튼 것을 코-엔은 卽 非有 Nichts를 引用하여 說明하였스니, 그 全體가 더욱 細微하게된다. 코-엔은 質을 처음에 잇서서는, 非有에 譬하였기 때문에 엇던 것 Etwas은 非有와 함께 始作된다고 하였다. 卽 故로 非有는 量化의 原理라

고도하였다. 그러나 코-엔에 있어서, 質의 量化만을 볼 수 없게 된다. 코-엔은 根源을 質에 譬하여 質의 量化를 말하였지만, 以上の 說明에서 벌써 質만을 볼 수 없으며, 그뿐만 아니라, 코-엔 哲學方法論으로 보아서, 모든 것을 綜合하면, 本意에 背反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吾人은 코-엔이 얼마나 數學的 方法을 結合시키려고하며, 더욱 그것을 論理化하여 微積分的 方法에 妥當하도록 努力한 것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대까지던지 量의 根底에는 質뿐이 있고, 따라서 活動自體도 亦是質的뿐이지 量의 關係는 없다고 하였다. 故로 思惟의 法則인 連續性和 同一性을, 또는 矛盾性을 모다 이 質的 見解로서만 說明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코-엔은 말하기를 連續性和 矛盾은 內的關係가 있고, 連續性和 矛盾과의 關係는, 그 差別에 依하여 制約을 맞는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코-엔은 同一性和 矛盾性을 區別하기는 하였지만, 質的同一關係로써 말하며, 그 關係는 差別에 依하여 制約맞는다는 것을 보면, 兩者의 區別을 質的區別(全體的)이 아니고, 量的區別을 말함에 不過하다. 換言하면, 코-엔은 質은 量의 基礎가 되기 때문에 質的同一만을 高調하였으며, 矛盾性은 問題삼았지만, 그는 다만 量的差別에 不過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코-엔은 數學에서 取扱하는 數로부터, 數學的 自然科學에서 取扱하는 數學的 運動에 이르기까지, 全部 그 根源의 結合은 質的 同一의 結合이라고 하였다. 連하여 코-엔은 根源과 同一性和 矛盾性은 思惟 Denken의 根底가 되고, 이 根底는 質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코-엔에 있어서, 徹頭徹尾하게 質的 同一性을 主張한 것이 明白하다. 그리고 質의 量化만을 認定하고, 生産에 있어서 具體的 普遍에 이르기까지, 產出됨을 說明하였을즉, 그 間의 消息은 다만 量的 差別만으로 滿足할가 하는 것이 問題다. 이것이 코-엔哲學에 있어서, 內包量의 思想을 鼓吹하며, 質的 見解를 가지면서도, 다만 質의 量化만을 認定하였기 때문에, 矛盾性 或은 具體的 普遍에까지의 生産의 說明이 不徹底하게 된다는 것을 指摘하는 同時에, 批判하려고 하 點이다.

나틀푸는 코-엔思想을 繼承하여, 亦是 思惟아래에서는 質의 思惟만 理解할 수있다고 하였지만, 나틀푸가 코-엔의 根源을 聯關 Zusammenhang 으로서 說明한것을 보면, 나틀푸는 質로만으로써 說明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틀푸는 質과 量의 두 方面으로 觀察하였다. 故로 質을 圓心에 比하고, 量을 圓周에 比하여, 兩者의 關係를 兩性具有的 形態로써 說明하였다. 이것을 보면 나틀푸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質과量은 分離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코-엔은 根源을 質로만으로써 說明하였다. 따라서 나틀푸는 非有를 絕對的 無로 解釋하지 아니하고, 엇던 것 Etwas이라고 하여, 相對的 非

有라고 하였다. 故로 코-엔이 칸트의 內包量的 方面을 重要視한 點을 보아서, 얼마나 나뉠푸가 發展된 것을 알 수 있다.

코-엔은 微積方法을 適用하였지만, 나뉠푸는 그것을 다시 極限法으로, 補正하였다. 故로 코-엔은 微積分의 思索으로써, 質의 量化안을 提唱하였지만, 根本的 本意로 말하면, 質量의 두 方面이 엮지 못 할 것이다. 卞라서 質의 同一性으로써 生産을 說明하고, 그 反面에는 矛盾性 或은 根源으로부터, 具體的 普遍에까지의 生産을 論한즉, 그 間連絡이 엮더한가. 코-엔은 어디까지던지, 質의 量化만 認定한것인즉, 그間의 解決如何가 問題된다. 故로 吾人은 質의 量化外에 量의 質化를 主張하여야만 한다. 卞라서 連續性和 全體性, 或은 內包量의 思想이 完成되며, 生産過程의 說明이 充分하게된다. 換言하면, 根源에는 別서 量的 關係가 있으며, 根源으로부터 具體的 普遍에까지 發展하는것은, 質의 量化와 同時에 量의 質化가 잇서야만 한다. 萬一에 코-엔과 같치 質的 量化만을 認定하고, 그것으로만 具體的 等差를 說明한다고하면, 코-엔의 獨特한 思想, 卽 連續性和 全體性 或은 內包量을 輸入한 思想이, 그 生産過程의 說明에 잇서서는, 何等의 意味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質的 量化 或은 質的 同一만을 主張하면, 部分的, 要素的, 考察에 不過한것인즉, 最初의 思想과는 相反하게되는卞답이다.

全體와 部分과의 關係를 다만, 積分的으로만 본다고하면, 코-엔의 微積分의 思想은 顛倒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矛盾性이 問題되는 卞에도, 質의 同一性和 質的量化로서는 量的 差別만을 區別할 뿐이지 全體的 矛盾性이란 것은 볼 수 없게된다. 矛盾性이란것은, 量的 差別을 云謂함이 아니오, 全體적으로 보아서 質的 相異가 잇는 卞에 稱하는 것인데, 卽 全體의 見地로 보는 것이며, 部分的, 要素的, 見地를 卞나서 質的 相異를 問題 삼는 것이다. 勿論 質的 說明을 함에도 二種이 있다. 코-엔은 그 中의 一만 보고, 卽 部分的으로 質的 同一性만 보고, 그 相異한 點 그 矛盾되는 點을 보지 아니하였다, 아니 보지아니한것이아니고, 觀察은 하였지만, 說明이 不足하였다. 換言하면, 成分의 要素的 同一性만 보고, 全體적으로 質的 差等이 잇는것을 說明하지 못하였다. 吾人이 矛盾을 問題삼는것은, 全體의 見地에서의 質的 差別을 論하는 것이다. 故로 吾人은 코-엔이 全部를 通하여 質的 同一性を 主張하는 것은, 結局 要素的, 部分的으로 보아서, 成分上 或은 性質上 類似한 것을 指摘하여 論함에 不過한 것이다. 卽 部分的으로 共通點 잇는 것을 보고, 卽時 그것이 全體적으로 보아서 同一하다고 하기는 不能하다. 코-엔은 質的 量化에만 局限하였지만, 나뉠푸는 그러치 아니하고, 처음부터 量的 見解을 包含하고있다.

以上과 如한 方式으로, 코-엔은 如何히 發展하는가를 實例로써 말하였다. 코-엔에 依하면 B는A에서 生産된다. 이와갓치 A에서 生産된 B는 別서 B요. A는 아니다. 그러나 亦是 그것은 A와는 關係가 있다. 그 B는 A에 對한 他者 Das Andere zum A라고 한다. 換言하면, 本 A는 아니고, 그것은 他 A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갓튼 境遇에, A와B를 比較하여 보면, 全體的質로 보아서A와B와는 名稱이 相異한것 만 큼相異하다. 그러나 部分的으로 보아서, 同一한 質을 가졌다던지, 或은 共通되는 點이 있다던지 하는것은 別問題다. A와A를 比較하여 볼새에, 全的으로 B는 別서 A가 아니다. 全體的으로 보아서 質로 다르다. 이와 갓치 하는 것이 코-엔의 本精神이여야 한다. 그러나 코-엔의 이 發展에 잇서서는 그러치 아니하다. 故로 初志를 貫徹할 뿐아니라, 根源으로부터 具體的 普遍까지의 生産을 論할려면, 必然的으로 全體的으로 本 質的 差異를 問題삼어야한다. 萬一에 不然하다고 하면, 生産은 不可能하며, 또 矛盾性的 問題로 돌아가고 마는것이다. 故로 質의 量化를 勿論 是認하는同時에, 量의 質化를 承認하지 아니하면, 以上の 說明은 無意味하게되는 것이다.

코-엔哲學에 잇서서, 그러하여 하겠다는 것은, 數에서도 볼 수 잇스며, 證明할 수 있다. 코-엔은 數에서 全體性을 表現할 새에는 Allheit 를 쓰고, 其外에 部分的 單一性을 或은 部分的으로, 單一 以上の 數를 表示할 새에는 Einheit 或은 Mehrheit 의 術語로써 代表하였다. 그러나, 最高 概念은 全體性 Allheit 에 잇고, 其外의 單一性 Einheit 或은 數多性 Mehrheit을 問題로 할새는, 다만 部分的으로 論할 새에 쓰는 表現方式에 不過하다.

이것이 코-엔 獨特한 或은 最初부터의 思想이다. 이와 갓튼 關係와 說明으로보아서도, 質의 量化는 勿論이지만 量의 質化의 法則은, 不可缺할 必然性을 가지고 出現하게된다. 이와 갓튼 明白한 自明的 證明으로 因하여, 哲學上 新理想主義의 一派인, 新칸트派, 더욱 그中の 重要分子의 一人인, 코-엔은, 理想主義의 影響을 아니 맞들수업섯스며, 맞은 것이 當然하다고 하겠다. 卞라서 헤-겔를 排擊하였지만, 그 思想을 自身에 包含하게 된 것을 보드래도 自명한事實이다.

以上과 如한 發展에 잇서서, 코-엔이 最初부터 最高法則으로認定하고, 生産說을 主張함에 對하여, 根本的으로 問題되는것은 무엇이나하면, 運動의 概念이다. 이 點에 잇서서, 코-엔이 其前 哲學者와 共通하며, 近世의 思想을 表現하였다고 하겠지만, 더욱 코-엔에 와서 明白하게 必然性을 가지고 出現하였다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갓치, 라이브닛츠도 單子論과 同時에 豫定調和說을 提唱하였지만, 必要하기 새문이라는 要求 條件으로 因하여, 하였다고

하겠지만, 코-엔에 있어서, 그러치 아니하고, 最初부터 必然적으로 前提된 것이 特殊한 點이오, 라이브닛츠와도 相異한 點이다. 故로 라이브닛츠는 條件的 必然性을 가진 것으로써, 豫定調和說을 論함에 比하여, 코-엔은 그것을 超越하여 絶對的 必然性, 即 方法論으로 말하면 論理的 必然性을 가진 것으로써, 運動의 概念을 論述하였다. 故로 必然性을 通하여 存在하는것 Durch Notwendigkeit Sein이 아니고, 存在하기 爲문에 必然性을 가진다. Durch Sein Notwendigkeit는 意味에서, 코-엔은 卓越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注意할 것은 絶對라고 하여, 그것이 所謂 俗稱하는 바 絶對 或은 다만 絶對 Das bloss Absolnte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數學的 自然科學의 根源을 形成하는, 全體性을 가진 論理的 方法의 意味로써 論함이다. 故로 世俗에서 非難을 맞는 形而上學的이라고 하던지, 或은 概念詩的 遊戲라고하는것이 아님이 明白하다. 卞라서 論理的이라고 하여도 所謂 普通云謂하는 論理的이라던지, 或은 다만 論理的 Das bloss Logische이라 하는 것이 아님이 注意할것이다. 이와같은 觀察方法에 있어서, 運動, 活動을 必然적으로 認定하기 爲문에, 언제던지, 自體와 他體 An sichund fuer sich 의 兩面的觀察이 包含되는것이다. 이런 것이 勿論 以前의 다만 形而上學的 觀察과는 相異하는 것이며, 헤-겔에 있어서 否定 Negation 이란 것이 最高形式은 自由 Freiheit 라는 意味도, 以上과 如한데서 自明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코-엔의 思惟는 意識과의 問題로 轉換하며,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지만 仔細한 것은 略한다. 이 意識問題는, 文藝復興 以來로 哲學問題에서 重要視되는 것이며, 重要한 問題가 되어있다. 그러기 爲문에 코-엔哲學에 있어서도, 亦是이 問題가 重要하며, 思惟는 意識과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다는 것만 確言하여둔다. 萬一에 그러치 아니하면, 코-엔의 無限性의 意味라던지, 或은 一面的,部分的, 觀察을 卞나서, 全體的 觀察로써, 모든 것이 發展하며, 卞라서 高次의 統一體가 된다는것은, 無意味하게 되고만다. 故로 다만 思惟된것 Das bloss Gedachte 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던지 活動的이다.

코-엔의 論理學을 純粹認識의 論理學이라고한 純粹의 意味도, 코-엔에 있어서 決코 無內容인 것이 아니다. 故로 코-엔도 말하기를 俗家의 생각에는, 純粹 Das Reine 한 것을 空虛하다고하여, 內容을 排拒하지만, 純粹한것은 內容에 對하여 否定하지 못할 關係에 잇스며, 萬一에 그러치 아니하면 純粹한 것은 無意味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드래도, 코-엔이 얼마나 動的의見解를 가진 것과, 一面的,部分的, 觀察을 卞나서 全體的 觀察을 하였는가 를알 수 있다. 그러나 코-엔은 始終이 如一하게 貫徹하지 못한 點이 잇는 것은 遺憾이다.

코-엔은 生産說과 同時에, 質의 量化만을 是認함에 對하여, 量의 質化를 亦是 認是하여야한다는것을 以上에서 評論하였다. 그리하여야만, 矛盾性和 同一性的 關係, 或은 全體性和 數多性和 單一性과의 關係를 明白하게 證明할 수있다. 따라서 生産方式에 잇서서도, B는A에서 完全히 生産되는 것이며, B가A에 對한 他者 Das Andere zum A 의 意味가 完全하게된다. 이와 갓튼 것은 全혀 運動의 概念을 本質的으로 內在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코-엔 論理學에 잇서서, 在來의 다만 形式的인 論理學과 相異한 點이다. 그러면 在來의 論理學을 全然 否定하느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一部分으로 認定하고, 그 以上 더 進出하여 立體的 論理를 提唱함에 意味가 있다. 이와 갓튼 것으로 코-엔은 論評하였다. 그리고 코-엔은 헤-겔의 辨證法的 發展過程의 方法을 非難排斥하였으나, 無意識的으로 自己는 그것으로써 說明하고있다. 이것이 運動의 概念을 輸入한 者의 不可避한 事實이며, 重要한 鍵盤이다. 內包量的, 全體的, 動的, 見解를 가진 코-엔에 잇서서는, 必然性을 가진 方法論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故로 코-엔을 論理主義라고 하지만, 그것은 形式論理的 見解로만 보지 말고, 그 中에는 立體的, 動的, 見解가 만히 輸入되어 잇는 것을 보아야한다. 그것은 웨그런냐하면, 論理라고 하여도, 다만 論理的 이라던지, 或은 다만 思惟된 것이 아님을 證明하고 잇기때문이다.

이와 갓튼 立體的 論理에 잇서서, 肯定은 勿論이지만 『否定的 意味가 顯著하게 그 獨特한 性質을 發輝하게된다. 그러면, 이 否定은 如何한것이냐하면, 吾人이 普通意味에서, 解釋하는 바와 갓지 아니하고, 그것은 生産을 前提로 한것이며, 코-엔 哲學에 잇서서, 重要性을 가져야 하는 것이 明白하다.

코-엔은 自身이 判斷 分類에 잇서서, 思惟法則의 諸判斷을 最高位로 하고, 그 中에서 第一에 根源의 判斷, 第二에서 同一性的 判斷, 第三에 矛盾性的 判斷을 세운 것을 보드래도, 否定的 概念이 얼마나 重要한 것을 表示하며, 生産에 잇서서 根本的 作用이여야만 한다는 것을 表言함이 아닐까. 이와 갓치 矛盾과 同一을 同時 에論함에 對하여서는, 量의 質化은 업지 못 할 根本的 思想일 것이 明白하다. 이와 갓튼 思想은 피히테에서도 볼 수 있다. 피히테의 能動 即 被動 Wechseltum und Wechselleiden 이 이것을 證明하며, 또 헤-겔의 衝動이 明示하고있다. 헤-겔은 衝動自身이 存在와 非有 를發展 식키며, 具體的 意味를 具象하는 必然性을 또 가지고 있다. 이것이 코-엔이 在來의 論理學을 評한 것과 엇던 關係를 가지고 잇는가. 코-엔은 在來의 論理를 評하되, 從來의 것은 다만 否定만을 吾人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이와 갓튼 觀察은 形式論理에서는 볼 수 업는 것이며, 動的 見解의 成果라고 하겠

다. 故로 田邊元氏도 平面論理에서는, 矛盾對立 Kontradiktorische Opposition 의 關係에 있는것도, 立體的 論理에 잇서서는 反對々立 Kontraere Opposition 으로 變한다고 하였다. 故로 새 論理로 말하면, 在來의 平面的, 分析的, 다만形式論理와 立體論理의 妥當 範圍 如何가 自然히 明白하게 된다. 이와 갓튼 것은, 第一 變動이 적은 數學에서도 證明할수있다. 以前 數學에서는 矛盾, 負數, 函數概念, 無理數 等の 概念은, 今日에 잇서서는 不可缺의 必須의 數學上 概念이되고 있는것을 보면, 形式論理와 立體的 論理의 關係가 明白하게되며, 卞라서 二律背及의 解決策의 鍵盤이 那邊에 잇슴을 알 것이다. 칸트哲學에서의, 實踐理性的 優位를 보던지, 或은 피히테의 實踐我的 優越를 보던지 하면 以上の 意味가 明白하게된다.

이와 갓튼 思想에서는, 合一과 分離는 永遠히 絶對로 對立하는것이 아니고, 相互關係하여 綜合的 發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田邊元氏가 말한 바, 具體的인 것이 普遍的이오, 抽象的인 것이 特殊的이라는 意味가, 顯著하게 發輝된다. 이것이 從來의 純粹形式 論理學과 相異하는點이다. 從來에는 普遍은 抽象的이엇지만, 立體的 論理에 잇서서는, 普遍이 具體的이란 것이다. 故로 吾人は 概念의 本質이 論理上으로 보아서, 抽象的普遍에서 完全한 것이 아니고, 그와 反對로 論理上 不完全한 概念에 不過하게된다. 다만 그것을 超越하여 具體的 普遍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概念의 論理的性質이 完備하게 되는것이다. 이와 갓튼 立體的 立場으로된 論理學에 잇서서는, 肯定과 同時에 否定性을 具有한 것이오, 無限으로 發展하려고 하는데는, 否定과 綜合이 相互作用하며 相互聯關하여 成立되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갓치 質의 量化, 質的, 一部分的, 說明의 滿足하나, 全體의 見地에서 觀察할 卞에는, 量의 質化와 同時에 否定의 概念의 根本的으로 必要한 것을再論한다. 大概否定은 絶對的 無를 意味하나, 그것은 絶對로 그런것이 아니고, 徹頭徹尾하게 過程을 意味하고 있다. 故로 否定은 全體를 包括하며 後에는 다시 肯定으로 還元 하며, 卞라서 一時的이 아니고 立言에 잇서서 進行的이다. 또 否定은 本質上 批判的이오, 反省的要素를 包含하고있다. 이와 갓치 否定은 無限的性質을 包含하였기 卞문에, 生産過程을 說明함에 根本的不可缺의 概念이다. 以上에서 論述한 바와 갓치, 코-엔論理學은 全體性和 過程의 概念을 重要視함에 잇스며, 微積分과 內包量的 方法을 高調함에 그 特色이 있다. 이것은 코-엔이 近世에 와서, 重要視된 意識 問題을 問題로 하기卞문이며, 卞라서 統一的關係를 論함에있다. 이와 갓튼 動的見解에 잇서서, 아인쓰타인도 亦是 새意見을 論述하였다. 아인쓰타인은 在來의 時間과 空間에 對한 觀念을 打破하고 아니 一層 더 進出하여, 時間과 空間이란것 外에, 새로 두世界가 合하여 成立된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亦是近世의 動的見解의 產物이다. 아인슈타인은 歷史關係를 말하여, 時間과 空間의 合成世界라고하였다. 卽 이것이 第四次元의 世界線 Weltlinie 를 意味한 것이며, 最近의 思想을 表現함시오, 여기서 數學的, 自然科學的, 思索方法과 社會科學, 或은 歷史科學的, 思索方法이 結合되며, 握手할려고하는 것을 明白하게 알 수 있다. 이런 方面에 잇서서, 코-엔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침이 잇는 것을 알것이다. 卞라서, 哲學的, 思索的, 方法과 科學的, 思惟方法의 密接한 關係가 잇는것이라던지, 코-엔이 얼마나 自己의 學祖되는 칸트를 發展시킨것을 略述함에不過하다.

最後로 唯心論에 잇서서, 現在論理主義的 哲學과 直覺的 哲學의 二大潮流가 잇는데, 이것이 서로 接近할려고하는 傾向이 잇스며, 아니 接近하는것이 當然하다는것을 斷言하고 쉽다. 이 問題가 唯心論 哲學에 잇서서 重大한 問題다. 卞라서 今後에 잇서서 唯心論 哲學의 方法論은, 새로운 方向을 取하여야만 하겠스며, 或은 根本的으로 새方法으로 展開도여야만 한다는것을 簡單하게 論하여둔다.